

1394TA International General Meeting 개최

차세대 멀티미디어 인터페이스 표준규격으로 주목받는 IEEE 1394 관련 국제회의인 1394TA International General Meeting이 삼성전자와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의 공동주관으로 4월 15일부터 17일까지 서울 신라호텔에서 성황리에 거행되었다.

IEEE1394 적용 제품의 시장 수요창출과 회원사간의 제품개발 및 대외홍보를 위해 설립된 1394TA(Trade Association)의 주최로 개최된 동 행사는 1394TA 회원들의 WG회의와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공개세미나로 나뉘어져 진행되었다.

4월 15일과 16일 양일간 개최된 WG 회의는 1394TA 회원들이 각 업체별로 진행중인 IEEE 1394 관련 제품 및 기술개발 현황을 발표하고 논의하는 회의로 160여명의 국내외 회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다.

17일의 공개세미나에서는 1394TA 회원들과 국내 정보통신 업체·기관·정부부처 및 멀티미디어 산업 관계자 등 400여명이 참석하여 IEEE1394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였다. 동 세미나에서는 1394TA 의장의 인사말과 IEEE1394에 대한 개요 설명을 시작으로 정보통신부 신용섭 기술기준과장, 우리 협회 멀티미디어협의회 김건중 위원장 등의 순서로 이어지면서 환영사 및 정부의 신기술 개발정책과 멀티미디어협의회 활동내용 등에 대해 소개하였다.

이어서 국내 삼성전자와 LG전자를 비롯하여 Apple, Hewlett Packard, NEC, Philips Semiconductor, Sony, 3A International등 국내외 유명업체들이 나와 IEEE 1394 관련 자사 제품 개발 현황 및 계획 등을 발표하였다.

오후시간에는 15일과 16일 양일간의 WG회의의 결과를 발표하여 IEEE1394의 최근 기술동향을 알 수 있는 시간이 되었다.

동 세미나에서는 각 사의 프리젠테이션뿐만 아니라 1394를 적용한 제품들의 시연이 함께 이루어져서 1394에 대한 이해를 더욱 높이고 최신의 멀티미디어 제품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이번 세미나는 그동안 국내 몇몇 대기업만이 관련 기술개발 등을 추진하고 있던 IEEE1394의 중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시키고, 세계적으로 이미 1394관련 개발이 상당히 진척되고 있음을 직접 확인함으로써 국내업체들이 분발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하겠다.

또한 삼성전자와 같은 국내 기업에서 관련 응용 표준규격을 제안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처하면서 국제 표준 규격 제정에 있어 국내 개발 기술을 반영시키고자 하는 노력도 점차 강화되고 있어, 국내기업들의 공동 대응 필요성도 강조되고 있다.

